

2020년도 1학기 Eurasia 재단 국제 세미나

「아시아 공동체: 동아시아학의 구축과 변모」 시리즈 강좌(1)

주제: 대만과 동아시아학 연구의 구축과 발전

2020 년도 제 1 회 Eurasia 재단 국제 세미나에서 중국문화대학교 서흥경(徐興慶) 총장은 「대만과 동아시아학 연구의 구축과 발전」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셨다. 그는 강연을 시작하면서 이번 코로나 19 상황이 청년들에게 미래 창업의 전환기가 될 수도 있으므로 현재 대학 생활을 알차게 보내고 학습 태도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피력하였다. 대학생들은 지식을 얻기 위한 간절한 태도가 필요하며, 넓은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. 이를 위해 학생들은 수업에 성실히 임하고, 충분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며,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.

문화대학교는 총 27 만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100 명당 한 명꼴로 정치, 경제, 문화와 교육 등의 각 분야에서 우수한 활약을 하고 있다. 이들은 문화대학교의 매우 중요한 자산이며, 지금 현재 문화대학교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리더가 되고 있다. 학교는 해외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요청했으며, 학생들이 일본에서 유학하는 동안 일본인의 근무 태도와 기업 문화 및 윤리 등을 관찰하기를 기대한다.

서 총장은 이어서 「아시아 공동체」의 개념을 설명했다. 먼저 유럽 연합, 유로(유럽 단일 화폐) 즉 유럽 공동체에 대한 예를 들었다. 아시아 국가들은 유럽보다 최소 2 배 이상 많고, 「아시아 공동체」가 100 여 년 전에 제안되었지만 전쟁과 역사적 문제로 인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여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이다. 원래 One Asia Foundation 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재단은 이제 Eurasia 로 명칭이 바뀌었다. Eurasia 의 개념은 무엇인가? 바로 「유라시아 공동체」이다. 이 재단의 이념은 정치적, 경제적으로 민감한 문제에서 벗어나 문화와 교육의 분야에서 「아시아 공동체」가 어떻게 실현 가능한지 고민하는 것이다.

사토 요지(佐藤洋治) 이사는 아시아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 장애물 즉, 「자아의 벽」, 「기업과 단체의 벽」 그리고 「국가와 민족의 벽」을 제거해야 한다고 했다. 우리는 국가의 개념이 점점 더 희박해지고, 누구나 지구촌의 개념을 알고 있으며,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대가 형성될 때 비로소 「아시아 공동체」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희망한다. 또한 앞으로 아시아의 화폐가 50여 개 아시아 국가에서 자유롭게 통용되길 바란다. 이와 같이 재단은 교육의 실현을 통하여 「전쟁 없는 세상」의 평화선언을 제시했다. 전쟁과 정치를 벗어나는 문제의식은 세계 각 대학의 교수와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.

서 총장은 동아시아학의 구축과 문화대학교에 근무하기 시작한 이후 행한 노력에 대해 보고하였다. 첫째는 일본 연구 실시 및 일본 연구 센터 성립이며, 둘째는 동아시아 인문사회과학 연구원 성립이다. 그리고 사회, 과학, 인문의 인재를 통합하고자 하였다. 학과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학교, 국가를 뛰어넘어,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재검토하고 대만에 동아시아 학문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.

타 문화의 관점에서 국제 일본 연구의 가능성은 이미 오랫동안 추진되어왔으며, 2010년 10월 대만에서 「대만과 일본 간의 상호 이해에 대한 생각과 실천」을 주제로

일본 연구 포럼이 개최되었다. 서 총장은 일본 문화청 장관 아오키 다모쓰(青木保) 교수를 초청하였다. 그는 상호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며, 일본 연구자들이 실제 인터뷰에 참여하고, 일본 현 상황을 세세하게 이해한 후 일본 관련 현황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.

국제 일본학이란 무엇인가? 국제 일본 연구는 국제 대만 연구, 중국 연구, 한국 연구 등 보편적인 인류공통학술 형식을 사용하여 국가와 지역의 문화와 생활방식이 가진 특성이나 의지적인 사물을 발굴하는 작업을 말한다. 국제 일본학 중 정치, 경제, 사회, 문화 등 모든 연구 분야도 마찬가지이다. 서 총장은 일본학을 강조했다. 다시 말해, 일본의 일본 연구, 국제 일본 연구는 학제(學際)적으로 다른 학술 분야와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. 그 외 Area Studies(지역연구)도 매우 중요하다. 일본과 대만 교류 현황을 살펴보면 상호 이해의 기초가 깊지 않을 수 있다. 예를 들면 홍콩, 마카오, 대만은 연간 약 800억을 벌어들이지만 무역 적자는 300억에 달한다. 지역연구의 시행은 자신의 나라와 다른 나라, 자신의 지역과 다른 지역, 자신의 문화와 타 문화를 탐구하는 동시에 상호이해에 의한 평화로운 국제관계나 지역 평화의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, 21세기 현대사회에서는 국제지역 연구의 중요성을 분명히 알릴 필요가 있다.

새 협력모델 구상과 관련해서 총장은 인문사회의 대화를 향하여, 동아시아의 국경을 넘나드는 공간을 이해하며, 젊은 학자의 육성에 주력하여, 국제적 공동연구를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가 등의 의제를 제시했다.

번역: 이세희(李世曦) 한국어문학과 석사과정

감수: 김선효(金善孝) 한국어문학과 부교수